

1. 조선 후기 광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통제 정책으로 잠채가 사라졌다.
- ②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생산 방식이었다.
- ③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 ④ 17세기 이후 민간인의 광산 채굴을 허용하였다.

2. 고려의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양계 지역은 계수관이 관할하였다.
- ㄴ. 수령이 파견된 주현보다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의 수가 많았다.
- ㄷ. 성종 때 12목이 설치되었다.
- ㄹ. 향·소·부곡 등의 특수행정조직이 있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의 노비인 만적 등 여섯 명이 북산(北山)에 나무하러 갔다가 공사(公私) 노비들을 모아 놓고 말하기를, “장군과 재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만 만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라고 어찌 빠 빠지게 일만 하고 채찍 아래에서 고통만 당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중략) “각자 자기 주인들을 때려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자. 이로써 이 나라에 다시는 천인이 없게 하면, 공경장상을 우리들이 모두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①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장악하는 한편 도방을 통해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 ②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해방하였다.
- ③ 풍수지리설을 앞세워 서경천도를 적극 추진하였다.
- ④ 딸들을 왕에게 시집보내어 권력을 잡고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4. <보기>의 밑줄 친 ‘그’의 저술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그는 당나라로 가던 도중 진리는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고 유학을 포기하였다. 여러 종파의 갈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융화, 통일시키려 하였으므로, 훗날 화쟁국사(和諍國師)로 추앙받았다.

- ① 『해동고승전』
- ② 『대승기신론소』
- ③ 『왕오천축국전』
- ④ 『화엄일승법계도』

5. <보기>의 개헌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대통령 3회 연임 허용
- ㄴ.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
- ㄷ.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 ㄹ.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ㄴ - ㄷ - ㄱ - ㄹ
- ③ ㄷ - ㄱ - ㄹ - ㄴ
- ④ ㄹ - ㄴ - ㄷ - ㄱ

6. <보기>의 글을 쓴 학자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검소하다는 것은 물건이 있어도 남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물건이 없다 하여 스스로 단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 산호 따위의 보배가 없다. 또 금과 은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 떡을 살 수 없는 형편이다. ……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 ① 균전론을 내세워 사농공상 직업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여 자영농을 육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② 상공업을 육성하고 선박, 수레, 벽돌 등 발달된 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제안하였다.
- ③ 처음에는 여전론, 이후에는 정전제를 내세워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다.
- ④ 통일 신라와 발해가 병립한 시기를 남북국 시대로 설정하여 발해를 우리 역사의 체계 속에 적극적으로 포용하였다.

7. <보기>의 정책이 시행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백성들이 육전[육의전(六矣廛)] 이외에는 허가받은 시전 상인들과 같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제공이 아되기를 “(전략) 마땅히 평시서(平市署)로 하여금 20, 30년 사이에 새로 벌인 영세한 가게 이름을 조사해 내어 모조리 없애도록 하고,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육전이 아니라면 난전이라 하여 잡혀 오는 자들을 처벌하지 말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잡아 온 자를 처벌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매매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백성들도 가난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원망은 신이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왕께서 따랐다.

- ① 법령을 정비하여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 ② 청과 국경선을 정하고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 ③ 조세제도를 개편하여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 ④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8. <보기>에서 설명하는 책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1433년(세종 15)에 편찬되었다.
- 각종 병론(病論)과 처방을 적었다.
- 전통적인 경험에 기초했다.
- 조선의 약재를 중시했다.

- ① 『향약집성방』
- ② 『동의보감』
- ③ 『금양잡록』
- ④ 『칠정산』

9. <보기 1>의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영의정 이원익이 아되기를, “각 고을에서 바치는 공물이 각급 관청의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 십 배, 몇 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을 설치하여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보기 2>—

- ㄱ. 이 법이 실시된 뒤 현물 징수가 완전히 없어졌다.
- ㄴ.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었다.
- ㄷ. 과세 기준을 가호 단위에서 토지 결수로 바꾸었다.
- ㄹ. 풍흉의 정도에 따라 조세 액수를 조정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10. <보기>의 사실이 발표되는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하였던 것이다. 아, 4,000년의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고, 2,000만 국민을 타국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000만 타국민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이래 4,000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 ① 친러 성향의 내각이 수립되어 러시아의 정치적 간섭이 강화되었고, 열강의 이권 침탈도 심해졌다.
- ② 러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 ③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 ④ 총리 대신 이완용과 조선 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어 국권을 상실하였다.

11. <보기>의 고려 토지제도 (가)~(라)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가) 조신(朝臣)이나 군사들의 관계(官階)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 행동의 선악(善惡), 공로의 크고 작음을 보고 차등 있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 (나) 경종 원년 11월에 비로소 직관(職官), 산관(散官)의 각 품(品)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 (다) 목종 원년 12월에 양반 및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 (라) 문종 30년에 양반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 ① (가) - 후삼국 통일 전쟁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였다.
- ② (나) -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 ③ (다) - 실적이 없는 산관은 토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④ (라) -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가 지급되고, 문·무관의 차별이 거의 사라졌다.

12. <보기>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이다. ㄱ~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기>—
 ㄱ. 경순왕이 스스로 왕건을 찾아 가서 고려에 항복하였다.
 ㄴ.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다.
 ㄷ. 왕건은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라고 정하였다.
 ㄹ. 왕건은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무찌르고 후백제를 멸망시켰다.

- ① ㄴ - ㄱ - ㄷ - ㄹ
- ② ㄴ - ㄷ - ㄹ - ㄱ
- ③ ㄷ - ㄱ - ㄹ - ㄴ
- ④ ㄷ - ㄴ - ㄱ - ㄹ

13. <보기>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사헌부 (나) 사간원 (다) 홍문관

- ① (가)는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다.
- ② (나)는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였고 정책 자문 및 경언을 담당했다.
- ③ (가), (나)는 5품 이하 관리에 대한 서경권을 가졌다.
- ④ (다)는 관리의 규찰과 풍속의 교정을 담당했다.

14. <보기>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동래성 전투
 ㄴ. 명량 대첩
 ㄷ. 노량 해전
 ㄹ. 행주 대첩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ㄹ - ㄴ - ㄷ
- ③ ㄹ - ㄱ - ㄴ - ㄷ
- ④ ㄹ - ㄴ - ㄷ - ㄱ

15. <보기>의 밑줄 친 ‘본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고자 함이 본사의 주지(主旨)이다.

- ①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주장하였다.
- ③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 ④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16. <보기>의 밑줄 친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때에 이르러 왕 또한 불교를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이 믿지 않고 불평을 많이 하였으므로 왕이 근심하였다. 이차돈이 아뢰기를 “바라건대 저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라고 하였다. …… 이차돈의 목을 베자 잘린 곳에서 피가 솟구쳤는데, 그 색이 우유처럼 희었다.

- ① 우산국을 정복하여 영토로 편입하였다.
- ② 국왕의 칭호로 마립간 대신 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③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던 한강유역을 차지하였다.
- ④ 율령을 공포하였다.

17.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관료 선발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 ②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상원사 동종 등의 문화유산을 제작하였다.
- ③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등의 관청을 두었다.
- ④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18. <보기>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8·15광복
- 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ㄷ.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설치
- ㄹ.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 ① ㄱ - ㄴ - ㄹ - ㄷ
- ② ㄴ - ㄹ - ㄷ - ㄱ
- ③ ㄷ - ㄱ - ㄴ - ㄹ
- ④ ㄹ - ㄷ - ㄱ - ㄴ

19.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3·1운동 이후 헌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바뀌어 경찰 수와 장비 등 경찰력이 약화되었다.
- ② 3·1운동은 비폭력 운동으로만 전개되었다.
- ③ 3·1운동 이후 일제는 친일파를 키워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통치방식을 사용했다.
- ④ 3·1운동 이후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입헌 군주제를 채택했다.

20. <보기>의 법을 시행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게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이를 부끄럽게 여겨 혼인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해서 백성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

- ① 종교적 지배자인 천군이 하늘에 대한 제사를 주관 하였고, 신성구역인 소도를 다스렸다.
- ② 읍군이나 삼로라고 불린 군장이 각각 자기 부족을 다스렸다.
- ③ 추수가 끝나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 ④ 한반도 남부의 진과 중국의 한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하였다.